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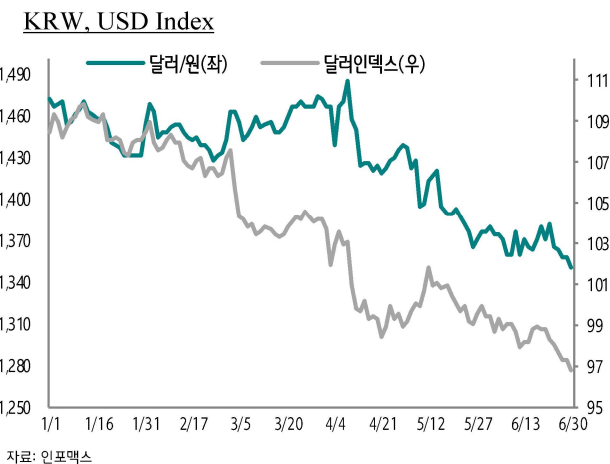
7월 1일

[USD/KRW]

USD/KRW 예상 : 1344~1354원  
NDF 증가 : 1349.70 (Swap point : -2.75, 1352.4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에 따른 글로벌달러 약세 연동하여 하락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이 연일 이어짐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는 금일 달러/원 환율 하락 견인할 것으로 예상. 미국-캐나다 간 무역갈등이 캐나다의 정책 철회로 인해 조기 완화되며 위험선호심리 회복된 점 또한 환율 하락 요인. 다만 전일 환율이 연저점을 경신한 데 따른 저점 인식에 나올 수 있는 결제수요는 환율 지지 요인. 이에 환율은 하락세 우위를 보이며 1340원 후반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30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3.6원 오른 1361.0원 출발. 반기 말 수출 네고물량과 미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하여 전장 대비 7.4원 내린 1350.0원 정규장 증가 기록. 야간시장 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에 하락세 일부 되돌리며 1355.3원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점 인식에 따른 결제수요 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인하 압박 지속</li> <li>• 미국-캐나다 간 무역갈등 조기 완화</li> </ul>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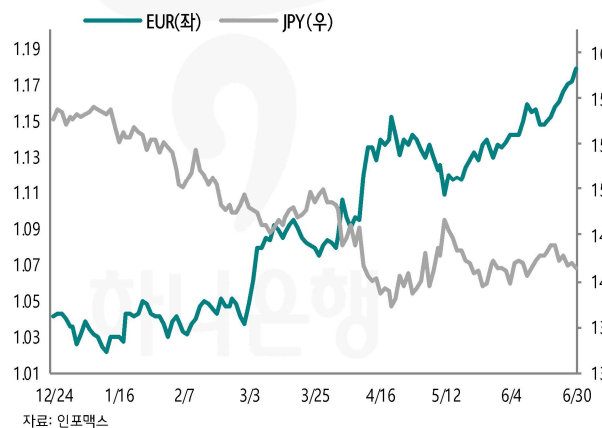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1720~1.1820  
USD/JPY 예상 : 143.40~144.40

- (USD Index) 글로벌달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및 미 국제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약세. 달러인덱스는 0.48 내린 96.78 기록
- (EUR) 유로화는 독일의 6월 CPI 예비치가 2.0%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하락하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 상대적 강세 흐름 시현. 유로/달러 환율은 0.0068 오른 1.1787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일본 5월 산업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잠시 약세를 보였으나, 곧 미 금리인하에 의한 미-일 금리차 축소 기대감 영향으로 강세 전환. 달러/엔 환율은 0.60엔 하락한 144.04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96.78 (-0.48)	
EUR/USD	1.1787 (+0.0068)	1591.29 (+0.49)
USD/JPY	144.04 (-0.60)	937.25 (-1.18)
USD/CNH	7.1577 (-0.0131)	188.60 (-0.68)

EUR, JPY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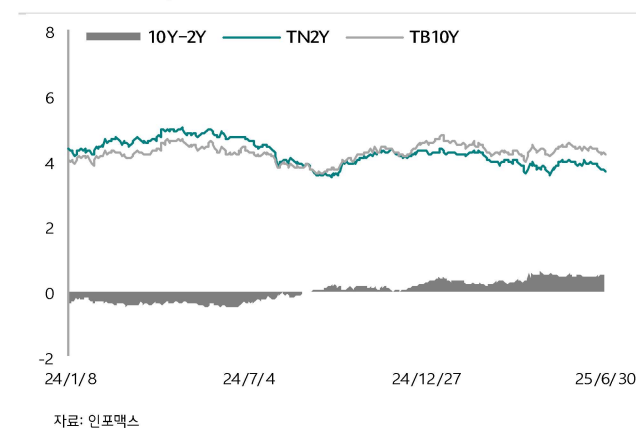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50.60bp (전일대비 -2.30)

-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에 주목하는 모습.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 동안의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위협을 넘어,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해 연준 전체를 비난하는 의견을 피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또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부정하며 금리인하 의견에 힘을 보탬.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갈등은 원인이 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철회되며 완화. 국제 수익률은 무역갈등 완화와 금리인하 전망 확산 등 반영하며 2년물 2.70bp 내린 3.723%, 10년물 5.00bp 내린 4.229% 기록. 뉴욕중시 또한 같은 재료를 소화하며 다우지수 +0.63%, S&P +0.52%, 나스닥 +0.47%로 마감.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의 증산 소식의 영향으로 하락.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09:00	한국 6월 수출(YoY)	4.7%	-1.3%
14:00	일본 6월 소비자신뢰지수	33.6	32.8
23:00	미국 6월 제조업PMI	48.8	48.5
23:00	미국 5월 JOLTS 구인건수	7.3M	7.39M

US Treasury Market



미 금리인하 압박 지속에 따른 달러 약세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